

한·일, 지속 가능한 '신안 갯벌·사구 보전' 길을 묻다

국제교류 간담회·포럼...양국 대표단 보전 협력·교류 약속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신안갯벌과 해안 생태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사구' (모래 둔덕)의 보전·활용 방안을 두고 일본 자치단체와 국내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댔다.

신안군은 최근 증도면 엘도라도리조트 우전비치를 등지에서 '2024 신안군 사구포럼'과 한·일 국제교류 간담회를 열었다고 27일 밝혔다.

신안 해안사구(砂丘)는 도초, 비금, 임자도 등 30여 곳에 분포돼 국내에서 가장 발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지역에 비해 보전 상태가 좋은 편이지만, 이마저도 조금씩 쇠퇴하고 있다.

사구는 큰 바람, 폭풍, 해일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파랑(波浪)에너지를 제일 먼저 맞아 에너지를 분산시키고 흡수하는 '자연 방파제' 역할을 한다. 복원력이 높아 인공 방조제보다 효과가 좋고, 해안사구가 발달한 지역은 해당 지역의 지하수위를 높여주는 효과도 있다. 이를 통해 바닷물의 침투를 막아 섬 주민

들과 다양한 생물들에 필수적인 지하수를 보호할 수 있다. 신안 해안사구들은 자연재해를 막아주고 생물 다양성을 높이는 데 큰 보탬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해수면 상승과 대규모 태풍 등 전 세계적인 자연재해 문제가 떠오르면서 사구에 대한 학술적인 연구가치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이번 학술 행사에서는 전승수 전남대학교 명예교수와 최강희 가톨릭관동대학교 교수가 '갯벌과 사구의 현명한 이용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강제운 사단법인 섬연구소 소장과 한호호 전 우이도 돈목 이장, 강지현 국립생태원 선임연구원은 '갯벌과 사구의 보전 방향'을 두고 토론을 했다.

같은 날 신안군은 일본 랍사르센터 관계자, 지방자치단체 갯벌 관련 공무원과 '세계유산 갯벌 보전'을 위한 한·일 국제 교류 간담회도 열었다.

일본 랍사르센터 부회장과 사가시, 가시마시, 아라오시 등 3개 지자체 공무원 등 총 6명이 간담회에

참석했다.

양국 대표단은 갯벌 보전을 위한 협력과 지속적인 교류를 약속했다.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일본 규슈 최대의 만 '아리아케 갯벌'은 가시마시와 사가시, 아라오시가 공동 관리하고 있다.

신안갯벌과 아리아케 갯벌은 자연 생태계가 비슷하고 지역민들이 김, 어패류 양식 등을 하며 생활 터전으로 삼은 점을 공통점으로 지니고 있다.

일본 방문단은 사흘간 신안갯벌을 둘러보고 갯벌이 세계유산에 등재되기까지 15년간 신안군이 들인 노력과 비결, 갯벌 활용 사업 등을 살펴봤다.

한편 신안갯벌은 생물 다양성이 높은 다양한 생태계와 국제적 멸종 위기종 등 다양한 물새의 핵심 서식지 등 중요성을 인정받아 지난 2021년 7월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됐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세계유산인 신안 갯벌의 지속 가능한 이용과 생태계 연결성 사구의 보전관리 강화를 위해서는 앞으로의 체계적인 관리와 노력



신안군이 최근 '2024 신안군 사구포럼'을 열고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신안군 제공)

이 중요하다"며 "이번 일본과 교류를 계기로 신안 갯벌의 보전·관리와 전문성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국제 교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목포 국도1호선 독립영화제·인권영화제 정착 지원

'소규모 영화제 지원' 공모 선정 상영·임차료 등 3200만원 확보

목포 국도1호선 독립영화제와 인권영화제가 '2024년 전남도 소규모 영화제 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소규모 영화제 지원사업은 지역 기반 영화제의 경쟁력을 높이고 영상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상영료와 장비 임차료 등 영화제 개최 비용을 지원한다.

목포시는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도비 총 3200만원을 확보했다. 국도1호선 독립영화제에 1700만원, 인권영화제에 1500만원을 지원하게 된다.

올해 11번째 열리는 목포 국도1호선 독립영화제는 '다시, 우리 이야기'라는 주제로 오는 8월15일부터 나흘간 열린다.

13회 목포 인권영화제는 '누구나 차별 없이 인권 영화를 만날 수 있도록'을 주제로 오는 10월18일부터 사흘간 개최된다.

목포 국도1호선 독립영화제와 인권영화제는 다양한 영화를 상영하고 감독, 출연진과 대화를 통해



지난해 열린 목포 국도1호선 독립영화제에서 관객들이 감독과 대화를 하고 있다. (목포시 제공)

관객과 소통하고 있다. 체험 행사를 다채롭게 열어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축제로 성장하고 있다.

목포시 관계자는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목포 영상산업 기반을 조성하고 시민 문화향유 기회를

넓힐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역 소규모 영화제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문화도시 목포 조성에 보태겠다"고 말했다.

/목포=박영길 기자 kyl@kwangju.co.kr

영암 고향사랑기부 답례품 공급업체 확대

다음달 7일까지 추가 모집...공예품 등 총 90종

영암군이 6월 7일까지 고향사랑기부금 답례품 공급업체를 추가 모집한다.

이번 모집은 영암을 생각하는 고향사랑기부자의 성의에 다양하고 특색있는 지역 상품으로 보답하기 위해 추진된다.

답례품 공급업체는 통신판매업 신고를 마친 영암군 사업체로, 지역 내에서 답례품을 생산·제조해야 한다. 선정 기준은 지역 대표상품 연계성, 답례품 보관·배송 운영 능력과 안정적 공급 여부 등이다.

참여 희망 업체는 군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해서 신청서와 공급제안서 등 관련 서류를 영암군 고향사랑팀이나 각 읍·면 총무팀에 방문·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영암군은 주요 답례품으로 한우, 쌀·잡곡류, 장어, 차, 김치·장 등 발효식품을 포함해 농특산물 가공품과 공예품, 관광 서비스 체험권 등 총 90종의 답례품을 마련하고 있다.

/영암=전병희 기자 jbh@kwangju.co.kr

진도 군민 치매 조기 진단 협력

보건소-길정신건강의학과의원 협약...검사비 등 지원



박진순(오른쪽 두번째) 진도군 보건소장과 오종길(왼쪽 두번째) 길정신건강의학과의원 원장이 업무협약 맺은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진도군 제공)

진도군 치매안심센터와 길정신건강의학과의원 이 최근 군민들의 치매조기검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진도군 치매안심센터는 지난 2018년부터 해남 우리종합병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한데 이어 두 번째다.

협약병원과 연계해 검사를 받을 경우 기준 중위 소득 120% 이하 대상자에 진단검사 최대 15만원,

감별검사 최대 8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진도군 치매안심센터로 하면 된다.

박진순 진도군 보건소장은 "협약 의료기관 확대로 치매에 대한 개인적, 사회적 부담이 조금이라도 줄어들기 바란다"며 "지역 치매환자 조기발견과 군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도=이종수 기자 js7777@kwangju.co.kr

영광군, 방역 사각지대 5곳 친환경 드론 방역

모기 유충 서식지 구제제 살포

영광군이 이달부터 오는 10월까지 '친환경 드론(무인 항공기) 방역'을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드론 방역은 접근성이 떨어지거나 접근하기에 위험한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영광군은 올해 처음 드론 활용 방역 사업을 추진한다.

주요 대상 지역은 무령1제, 세월제, 녹사제, 흥곡저수지, 옥당로-연성리 하천 등이다.

이들 지역은 모기와 갈따구 등 유충이 대규모로 서식하는 곳이다.

방역 차량 접근이 어려워 영광군은 드론으로 집중 방역을 하기로 했다.

드론은 정밀한 비행과 분사 능력을 갖추고 있어 방역이 필요한 지역에 정확히 유충 구제제를 살포할 수 있다고 영광군 측은 설명했다. 유충 한 마리를 잡으면 성충 500마리를 박멸하는 효과가 있어 적은 비용과 노력으로도 큰 방역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영광군은 친환경 유충 구제제를 활용해 사람과 동물, 수서생물에 피해가 없도록 했다.

/영광=김창원 기자 kcw@kwangju.co.kr



영광군 관계자가 저수지 인근에서 드론 방역을 하고 있다. (영광군 제공)

무안군 '스마트 도시 전환' 속도

공모사업 선정 12억5000만원 확보...스마트 산책로 등 조성

무안군이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2024년 스마트 도시 솔루션 확산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돼 국비 12억 5000만원을 확보했다.

국토교통부는 지역의 스마트 도시 서비스를 확대하고 디지털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공모를 추

진, 무안군을 포함한 10개 자치단체가 선정됐다.

무안군은 공모에서 일로읍과 몽탄면, 삼향읍(신도심)에 조성 중인 산책로를 대상으로 선정하고, '교통문제, 군민 건강증진, 지역경제 활성화'

에 대한 방안을 제시했다.

스마트 횡단보도, 워커블시티 무안 프로젝트와 연계한 스마트 산책로 조성, 스마트 버스킹과 덴스 등 스마트 문화 솔루션을 해결 방안으로 심사위원들로부터 높은 점수를 받았다.

김산 무안군수는 "이번 선정으로 무안군 스마트 도시 건설에 한발 다가서게 됐다"며 "안전하고 윤택한 무안형 스마트 도시건설을 위한 체계적이며 중장기적인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무안=김민준 기자 jun@kwangju.co.kr

봄 산란기 어린 물고기 포획하면 어업 정지

완도군 이달까지 불법 어업 단속...허가 취소 등 행정 처분

완도군이 이달 말까지 한 달간 '불법 어업 합동 단속'을 벌인다.

이번 단속은 봄철 어패류 산란기를 맞아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완도군은 해양수산부와 전남도 등 관계 기관과 함께 단속에 나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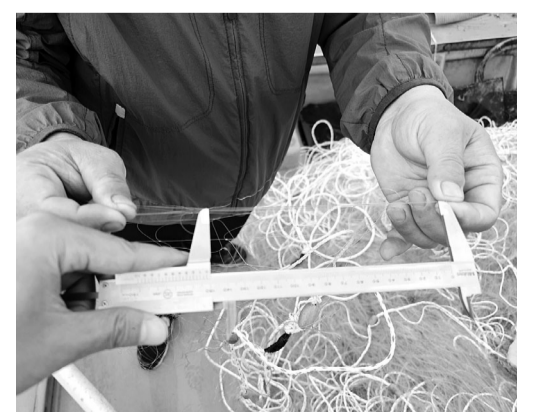
중점 단속 대상은 불법 조업, 무면허 양식 시설, 어린 물고기 불법 포획, 불법 어구 사용 등 어업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다.

단속에 적발된 불법 어업 행위자는 수산 관계 법령에 따라 사법 조치하고, 어선에 대해서는 어업 정지, 어업 허가 취소 등의 행정 처분을 내린다.

또한 어업인의 준법 조업 분위기 확산을 위해 지역 주요 위판장 등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벌인다.

불법 어획물 유통·판매 행위에 대한 지도·점검을 하고 우심 해역을 집중적으로 살핀다.

완도군은 이번 불법 어업 합동 단속 외에도 고질적인 불법 어업을 근절하고자 자체 계획을 세워 연



단속반이 어물 그물코 규격을 확인하는 모습.

중 수시 지도·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완도군 관계자는 "어업 질서 확립과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어업 지도·단속에 더 힘쓰겠다"면서 "어업인들도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안전하게 어업 활동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완도=정은조 기자 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